

結婚한 婦人의 媿父母와의 同居形態

金 敏 子* · 孔 世 權** · 曹 愛 姐***

이 연구는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만15세 이상 기혼부인 2,8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家族機能과 役割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既婚婦人의 媿父母와의 同居樣相과 그 關聯要因을 檢討한 것이다.

既婚婦人과 媿父母와의 同居는 1960年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약 3/4에 달했으나 198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3로 감소했고, 남편이 長男인 경우는 같은 결혼코호트에서 91%가 47%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점은 산업화로 인한 社會·經濟的 要件과 個人 또는 家庭的 要件이 전통규범만을 준수할 수 없게 하는 가운데서 結婚後 父母와의 別居形態가 증가되어 老人의 家族扶養은 별도의 對策이 要求됨을 지적하고 있다.

I. 序 論

家族生活은 그 가족이 속한 社會·經濟·文化的 要因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複合的인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가족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는 社會·경제구조나 문화적 특징이 매우 주요한 요건이 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초점을 둔 “結婚한 婦人의 媿父母와의 同居形態”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傳統的 韓國家族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父系家族을 이루고, 가족중심의 생산과 소비체계를 유지해 왔다. 즉 長男은 부모를 모시면서 가문의 전통을 이으며, 次男以下는 결혼과 함께 分家形

態를 이루면서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氏族社會가 발전되었다(李光奎, 1990 ; 118~133).

이러한 가족중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은 산업화에 따라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이 산업화에 따라 변형되는 사회구조에 맞아들지 못하는 가운데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뜻이 적절할 것이다. 즉 산업화가 개인의 역할을 다양화시키고, 개인중심의 생활양식을 고취시키면서 家族關係나 共同體意識은 弱化되어 家族分化가 이루어지고 혼란이 시작된다(Goode, 1963, 1983).

이러한 점은 최근 한국에서도 가족중심의 생산체계가 기업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都市中心의 産業化

* 美國 하와이 東西文化센터 人口研究所(East-West Center, Population Institute) 副所長

** 本院 研究委員

*** 本院 責任研究員

는 離農現象을 불러 일으켜 1960년 총 인구중 72%의 農村人口는 1990년 26%로, 그리고 1차 산업에서의 취업율은 66%에서 19%로 감소되면서 2~3차 산업이 중심이 된 都市 産業社會가 형성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여성 교육기회의 확대는 물론 생산분야에서 모자라는 일손은 가사만을 전담해 왔던 여성인력까지 흡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어 왔다(표 1 및 표 2 참조).

이와 같이 취학이나 취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학교나 직장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가족간에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은 생활의 독립으로 연결되어 가족분화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長男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규범은 준수되기 어렵고, 부모·자식간에도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경우는 편의성을 위주로 分家가 이루어지면서 家族扶養體系는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女性就業의 普遍化는 자녀양육과 가사의

책임도 문제시되지만 老父母의 扶養에서도 문제가 뒤따른다. 경제적 독립과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외에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傳統觀念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價値觀의 變化를 들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에서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의식이 문제시 된다.

한편 부모가 자식들과 동거한다 하더라도 손자녀를 보살피 주거나 집안일을 돌봐 주어야 하므로 자식들로 부터 모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에서 世代間 經驗과 意識의 差異가 커지면서 고부갈등은 심화되어 3代 家族의 維持가 어렵게 되었으며(韓南濟, 1984), 젊은 부부들은 적은 자녀를 두면서 자유롭게 윤택한 가정을 이루려는 추세와 함께 자신들의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家族의 共同體 意識을 弱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로 한국인구는 멀

Table 1. Changes of Selected Socioeconomic Indicators in Korea, 1960~90

一部 社會經濟指標의 變化

Year	Indicator		
	percent urban population	percent of labor force in primary industry	percent of women in labor force
1960	28	66	14
1965	37('66)	59	37
1970	41	51	39
1975	48	46	40
1980	57	34	43
1985	65	25	41
1990	74	20('89)	46

Source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1989), *Outline and Major Results of the 1985 Population & Housing Census in the Republic of Korea* ; Kwon, Tai Hwan, et al.(1975),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won, Tai Hwan(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 SNU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1991), "Results from the '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pril, 1991", Mimeographed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1963), *1960 Population & Housing Census of Korea*, Vol. 2

Table 2. Women's Level of Education by Year of Birth
 出生時期別 婦人의 教育水準

Year of Birth	Percent with Senior High or more Education
1921~25	2
1926~30	6
1931~35	9
1936~40	14
1941~45	21
1946~50	31
1951~55	40
1956~60	53
1961~65	68
1966~70	86

Source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1987), *198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 1, Table 4.

지않은 장래에 老齡化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부양이 가능한 젊은층에 비하여 부양을 받을 노인수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부양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經濟·社會的 要因은 자녀의 父母扶養을 沮害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한국갤럽, 1990).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노인의 가족부양에 기초가 되는 結婚한 子女와 그들 父母와의 同居形態를 分析하는데 焦點을 둔 것이다. 즉 자녀중 누가 부모와 동거하고, 또 어떤 경우에 별거하며, 부모·자식간 동거나 별거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資料 및 方法

본 연구는 결혼한 부인의 結婚直後 媳父母와의 同居樣相을 파악하고, 同居와의 關聯要因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1989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家族機能과 役割에 관한 조사자

료를 분석한 것이다. 동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만15세이상 기혼부인 2,838명에게 가족사항, 결혼, 출산, 가족의 건강 및 역할실태 등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결혼한 부인의 시부모와의 동거형태는 먼저 부인을 중심으로 한 個人特性別 差異를 검토한 후 關聯變數를 多變量 로짓트 回歸分析 模型에 의거 要因分析을 시도했다. 또 이러한 분석은 최근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감안해서 産業化 以前인 1960년 이전 결혼한 부인과 産業化 初期인 1960~1979년에 결혼한 부인, 그리고 産業化 成熟期인 198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으로 나누어서 결혼코호트별 變動推移를 檢討하였다.

III. 家族의 變化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의 기본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가족은 보편성을 지니며, 이는 社會·文化的 條件에 따라 다소간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家族의 普遍性은 血緣을 基礎로 한 生活單位로서 전통가족은 생산과 소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의 교화까지 가족체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家族機能의 일부를 社會機能이 代行하면서 機能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家族의 形態나 生活 또는 價值觀의 變化를 가져오게 했다(Goode, 1983).

한국가족은 朝鮮朝 이후 유교적 틀로 가족관계를 공고히 하는 父系家族制度로 長幼有序나 男女有別과 같은 이념이 가족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었고, 개인보다는 家門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制度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점차 붕괴됨을 엿볼 수 있다. 즉 산업화·도시화에서 전통제도가 유용성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는 家父長的 權威의 失墜가 가족질서를 와해시키면서 家族分裂

과 缺損家族의 增加를 초래했고, 家族解體는 이를 또 다른 제도적 틀로서 포용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峨山財團, 1986). 이러한 점은 구조·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價値體系의 混亂을 포괄한다.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가족기능중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扶養機能이 出産力 低下와 老齡化가 促進됨에도 그 軸이 下行되어 자녀부양에만 편중됨은 전통제도와는 逆機能的 側面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이혼과 별거, 가출 등 家族解體 要因의 增加는 現代家族의 危機를 잘 立證한다고 보겠다.

이처럼 사회변화에 따라서 家族의 定型이 바뀌는데는 구조·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가치체계가 변화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서 家族中心의 生活樣式이 個人中心으로 바뀌어지면서 家族의 分化和 出産力의 低下는 少家族化 내지는 核家族化로 수렴되고, 그외 다양한 獨身家族의 增加를 촉진시켜 왔다. 따라서 1960년 전체 가족중 7%였던 1世代 家族이 1989년에는 22%로 증가한 반면 3世代 直系家族은 29%에서 1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족형태는 都市·農村간 特異性을 지녀 農村에서는 젊은 층의 離農現象으로 노부부나 노인 독신으로 구성되는 늙은 1世代와 傳統的 3世代 直系家族이, 都市에서는 젊은 독신이나 젊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1, 2世代 家族이 普遍性을 지니게 되었다(孔世權外, 1989).

가족형성에 기초가 되는 結婚은 早婚에서 晩婚으로 이어지면서, 가문간 또는 부모의 뜻에 의한 결혼은 결혼당사자들에 의한 自律婚으로 바뀌게 되었다.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20세 이전에, 남자는 20세를 전후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初婚年齡은 여자가 25세, 남자가 28세로 연장되었다. 또 부모에 의한 자녀의 결혼결정은 1950~1959년 결혼에서는 89%를 차

지했으나 1980~1989년 결혼에서는 15%로 감소하면서 결혼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또 未婚率이나 離婚, 再婚 및 別居率도 增加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의 출산은 傳統的 多産形態가 少産形態로 바뀌면서 1960년 合計出産率은 6.0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6수준을 나타내고, 이는 가족간 分居現象과 함께 家族規模를 1960년 5.6명에서 1990년 3.8명으로 縮小시켜 왔다(孔世權 外, 1987 ; 139~156).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家族關係에서도 個人主義의 性向이 共同體 意識을 弱화시키면서 결혼한 자녀와 그들 부모와의 동거형태도 줄어들게 되었다. 60세이상 노인중 결혼한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는 1981년 55%에서 1988년에는 42%로 감소했고,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는 8%로 증가했다(한국갤럽, 1990). 이러한 分居形態의 增加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혼한 자녀와 부모와의 동거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규범적 영역을 넘어서 필요에 의해서나 役割補完의 相對性에서 重視되어 진다고 할 때 家族扶養은 本質的으로 再論되어야 할 점이다. 즉 부모·자식간 동거가 자녀의 성장기에는 양육과 교육을 위해 필연적이었던 것이 성장후에는 경제적 자립으로 분거로 이어진다면 父母의 老後扶養은 별도의 代案이 要求된다는 점이다. 결국 부모·자식간 동거와 별거는 상대적이어야 하느냐? 또는 필연적이어야 하느냐? 에 따라서 家族扶養은 再考의 여지를 갖게되는 것이다.

IV. 父母와의 同居樣相

자녀는 성장기에 부모와 같이 살면서 양육과 보호,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독립된 생활을 위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成長後에는 결혼과 함께 딸은 出嫁하여 男便家族에 歸屬되고, 次男

以下는 分家를 통해서 獨立된 家族(family of procreation)을 이루며, 長男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直系家族(stem family)을 유지함을 家族制度의 根幹으로 삼아 왔다. 자녀를 분가시키는데는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부모가 갖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분배해 독립된 생활이 가능토록 했고, 이로써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 왔다. 여기서 재산분배는 노후를 돌보아 줄 長男과 그렇지 않은 자녀를 구분해서 차이를 둔 長男優待의 相續制度가 維持되었다. 따라서 누가 결혼후 부모와 같이 살고, 또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정한 規範의 틀로 정해졌고, 이러한 家族制度가 家族生活를 維持시켜온 骨格을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는 이러한 틀을 흔들어 놓았다. 자녀는 結婚前이라도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서 부모곁을 떠나 생활해야 하고, 結婚後에

도 취업조건에 따라서는 長男일 지라도 父母와 分居形態를 취해야 생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長男이 부모를 모시며 직계가족을 이루는 형태가 준수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도 현저하게 엿볼 수 있다. 만 15세이상 既婚婦人중 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했던 경우, 媳父母와의 同居經驗은 1960년 이전 결혼에서는 약 3/4를 차지했으나 1980년 이후 결혼에서는 1/3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媳父母와의 同居關聯要因을 時代別로 比較 分析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結婚時期別로 나누어 婦人特性을 살펴보았다(표 3 참조).

結婚直後 都市에 居住한 부인은 1960년 이전 결혼에서 24%였으나 1980년 이후 결혼에서는 78%로 높아졌고, 남편이 長男인 율은 1960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 56%였으나 198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40%로 감소했다. 여기서 남편의 長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Us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Post-nuptial Coresidence by Year of Marriage

結婚時期別 婦人들의 特性—로짓트 回歸모델에 이용된 變數를 중심으로

Variables	Year of Marriage		
	before 1960	1960~79	1980 or later
post-nuptial coresidence	76	54	33
with husband's parent(s)(%)			
post-nuptial urban residence(%)	24	59	78
husband is first son(%)	56	49	40
mean wife's age at marriage(yr.)	17.7	21.9	23.6
wife grew up urban area(%)	22	37	55
husband grew up urban area(%)	23	38	56
couple met informally(%)	2	25	47
decided husband self(%)	4	51	84
wife's education=medium(%)	5	28	26
wife's education=high(%)	4	27	66
mean year of marriage(yr.)	1946.2	1970.6	1984.3

Notes : (1) Tabulation is limited to women who had at least one surviving parent-in-law at the time of marriage.

(2) Medium education is some junior high school, high level of education is some senior high school or more.

男인 率의 減少는 그간 出生 및 死亡率의 變化 要因과 關聯된다. 즉 198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이들의 출생이 1960년대를 전후한 베이비붐(baby-boom)기로 出生率이 높고 死亡率이 낮아 平均子女數가 많기 때문에 長男인 율이 낮지만, 1960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1930년경 출생코호트로서 出生率과 死亡率이 모두 높아 平均子女數가 적기 때문에 長男率이 높게 된다. 부인과 남편의 成長地는 都市인 경우가 1960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 약 1/5이었으나 198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2로 증가했고, 初婚年齡은 18세에서 24세로, 自由婚은 2%에서 47%로, 또

婚姻決定은 결혼당사자에 의한 결정이 4%에서 84%로 증가했다. 부인의 教育水準은 중학교이하가 5%에서 26%로, 고등학교 이상은 4%에서 66%로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를 수록 社會變動에 따른 個人特性이나 役割 및 價値觀 變化가 顯著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개인이나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어진 점은 이를 傳統制度나 規範의 틀로 包容할 수 없게된 要件이 된다. 즉 개인역할의 다양화와 자율성이 중시되면서 개인은 가정이란 울타리에만 묶여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와 그들

Table 4. Percentage of Women who Lived with Their Parent(s)-in-law Immediately after Marriage by Year of Marriage and Selected Women's Characteristics
結婚時期 및 婦人特性別 結婚直後 媳父母와의 同居率(%)

Women's Characteristics	Year of Marriage		
	before 1960	1960~79	1980 or later
all women	76	54	33
post-nuptial residence : rural	80	72	58
urban	61	42	26
husband is first son : no	56	39	25
yes	91	70	47
wife's age at marriage : <20	78	61	49
20~24	65	55	34
25+	30	37	30
place wife grew up : rural	78	59	39
urban	66	47	29
place husband grew up : rural	79	58	39
urban	64	48	29
how the couple met : formal	77	57	36
informal	36	46	31
who decided husband : parents	77	64	42
self	50	45	32
wife's education : less than JH	77	64	41
junior high	61	50	37
senior high ⁺	65	42	31

Note : Tabulation is limited to women who had at least one surviving parent-in-law at the time of marriage

父母와의 同居도 規範으로만 유지될 수 없고, 役割의 自律性에 따라 分居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표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結婚直後 居住地가 都市인 경우는 農村에서 보다 父母와의 同居率이 낮고, 최근에 이를 수록 현저한 減少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60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중 결혼직후 시부모와의 동거경험은 都市에서 61%, 農村에서 80%였으나 1980년 이후 결혼에서는 都市가 26%, 農村이 58%로 減少된 점에서도 類推된다.

長男이 부모를 모시는 규범적인 형태는 최근에 이를 수록 급속히 변화되어 1960년 이전 결혼에서 長男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91%, 次男以下는 56%로써 1960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남편이 長男인 경우 거의 모두가 결혼직후 시부모와 동거하였으며, 남편이 長男이 아니더라도 반이상이 결혼직후 시부모와 동거한 경향이 있으나 1980년 이후 결혼에서는 長男이 47%, 次男以下가 25%로 감소되었다. 즉 최근에 이를 수록 부모들은 자녀를 결혼시키면 兄弟順位에 關係없이 分家시키고, 未婚子女와 살거나 부모들만이 사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經濟企劃院, 1990). 결혼한 자녀와 부모와의 동거는 초혼연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初婚年齡이 빠를 수록 同居率은 높고, 늦을 수록 別居形態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 이후 결혼에서 20세미만에 결혼한 부인은 약 1/2이 시부모와 동거했으나 25세 이후는 약 1/3 이하로 낮다. 이러한 점은 1960년 이전의 결혼에서도 20세 미만에 결혼한 부인중 약 3/4이 시부모와 동거했으나, 25세 이후는 약 1/3로 감소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과 남편의 成長地別 부모와의 동거는 農村이 都市보다 높지만 이러한 점은 最近에 이를 수록 急速한 低下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急速한 都市化와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즉 1960년 이전에 결혼한 부부는 약 2/3가 農村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慣習에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1980년 이후 결혼은 약 1/2 미만이 農村에서 성장하였고, 또 성장지가 農村이라도 離農現象이 부모와의 別居를 조장했던 것이다. 結婚形態別 부모와의 동거율은 仲媒婚이 自由婚 보다 높고, 부모가 결정해준 결혼이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보다 높다. 부인의 教育水準別 시부모와의 동거는 教育水準이 낮을 수록 높고, 높을 수록 낮은 逆의 關係를 나타낸다. 1980년 이후 결혼에서 부인의 학력이 高等學校 以上인 경우는 31%만이 부모와 동거한 반면 中學校 以下는 41%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60년 이전 결혼에서 부인의 학력이 中學校 以下는 3/4이, 高等學校 以上은 2/3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V. 父母와의 同居要因

본 분석에서는 父母와의 同居要因을 多變量 로짓트 모델을 사용하여 각 變數의 純影響(net effect)를 推定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용한 결혼한 부인의 시부모와의 동거에 관련된 變數는 ① 부인의 結婚直後 居住地의 都市, 農村 여부, ② 남편의 長男 여부, ③ 婦人의 결혼당시 年齡, ④ 婦人成長地의 都市, 農村 여부, ⑤ 男便成長地의 都市, 農村 여부 ⑥ 仲媒婚 또는 自由婚 여부, ⑦ 結婚決定이 부모 또는 당사자에 의해 서인지의 여부, ⑧ 婦人의 教育水準, ⑨ 夫婦의 結婚年度 등이다.

<표 5>에서 보면 부인의 結婚直後 居住地가 都市인 경우는 각각의 결혼코호트에서 시부모와의 동거와 逆의 關聯性으로 有意하며 최근에 이를 수록 그 영향력이 증가되어 都市에 居住하는 婦人일 수록 媿父母와 別居하는 傾向이 늘어나고 있다. 남편이 長男인 경우는 각각의

Table 5.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for Women's Post-nuptial Coresidence with Husband's Parents
 結婚後 媳父母와 同居한 婦人들에 대한 로짓트 回歸係數

Factors	Year of Marriage		
	before 1960	1960~79	1980 or later
intercept	2.115*	1.466	7.986*
urban residence	-0.759*	-1.307*	-2.099*
husband is first son	2.160*	1.332*	1.113*
wife's age at marriage	-0.078*	-0.039	-0.058*
wife grew up urban	-0.014	0.087	-0.261
husband grew up urban	-0.315	0.542*	0.336*
couple met informally	-0.987	0.084	0.017
decided husband self	-0.692	-0.478*	-0.227
wife's education=med	-0.262	-0.244	-0.538
wife's education=high	0.028	0.003	-0.374
year of marriage	-0.003	-0.003	-0.073*
urban * med education	-0.034	0.166	1.013
urban * high education	0.585	-0.398	0.549
age * med education	-0.054	-0.046	0.041
age * high education	0.177	-0.059	0.029

Note : (1) Analysis is limited to women who had at least one surviving parent-in-law at the time of marriage.
 (2) Residence refers to the residence immediately following marriage. (3) Medium education is some junior high school, high level of education is some senior high school or more. (4) * indicate $p < 5\%$

결혼코호트에서 同居樣相이 뚜렷하지만 이러한 점도 최근에 이를 수록 줄어드는 양상이다. 부인의 初婚年齡은 늦어질 수록 媳父母와의 別居性向은 增加하고, 이는 1960년 이전과 1980년 이후 결혼에서 有意性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부인의 成長地는 媳父母와의 同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편의 成長地는 有意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도시에서 자란 남편을 가진 부인은 196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 媳父母와의 同居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成婚過程은 부모에 의한 결혼결정 보다 당사자에 의한 결혼결정이 1960~79년 결혼코호트에 한해 별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인의 教育水準은 별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

結婚年度는 198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 한해 媳父母와의 別居에 有意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제까지 분석에서 부인의 媳父母와의 同居에 有意性을 나타냈던 變數만을 중심으로 結婚直後 媳父母와의 同居樣相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여기서 보편적인 점은 農村居住 婦人이 都市居住 婦人보다는 結婚直後 媳父母와의 同居經驗率이 높은 것이다. 부인의 教育수준과는 관계없이 최근 결혼일 수록 결혼직후 시부모와의 동거경험율은 農村에서 보다 都市에서 급속히 減少되는 양상이다. 남편의 兄弟順位別 결혼직후 시부모와의 동거도 최근 결혼일 수록 감소되지만 長男과의 同居는 次男以下에서 보다 두배의 차이가 있다. 또 시부모와의 동거율은 부인의 결혼연령이 높을 수록 낮다. 남편의 성장지가 都市인

Table 7. Of Women who did not Live with Parent(s)-in-law Immediately after Marriage, Percent Distribution of Reasons for not Living with them by Year of Marriage

結婚時期別 結婚直後 媳父母와 同居하지 않은 婦人の 別居理由(%)

Reasons	Year of Marriage		
	before 1960	1960~79	1980 or later
husband is not first son	67	48	30
because of place of work	12	30	38
other reasons	22	22	32

Note: Other reasons include "because we (or parents) did not want to".

점이다. 즉 한국에서는 부인의 教育程度가 결혼 후 傳統의 生活慣習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인의 教育수준과 시부모와의 동거(표 3 참조)는 單變數 分析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변수들, 특히 거주지, 성장지, 결혼연령 등과 함께 분석한 多變量 分析에서는 統計的으로 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直後 媳父母와의 別居 理由は 1960년 이전 결혼에서 2/3 이상이 남편이 長男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음은 就業 때문이 12%였으나, 1980년 이후 결혼에서는 長男이 아닌 이유가 1/3 이하로 감소하고, 취업 때문이 38%로 증가하며, 기타 이유는 1960년 이전 결혼에서 22%였으나 1980년 이후 결혼에서는 32%로 증가하고 있다(표 7). 이처럼 결혼한 자녀와 부모와의 별거는 최근에 이를 수록 就業이나 기타 社會·經濟的 理由나 個人的 理由로 增加함을 알 수 있다.

VI. 綜合檢討

韓國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社會構造의 變化와 教育 및 就業機會의 擴大 등이 개인의 역할 및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家族關係도 많은 變化가 있어 왔다(Tsuya and Choe, 1991).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結

婚한 子女와 그들 父母와의 同居形態가 최근에 이를 수록 급속히 減少되는 점에서도 엿보게 된다. 특히 유교문화권 사회는 敬老孝親을 생활의 으뜸 德目으로 여기고, 長男이 父母를 모시면서 家系를 繼承하며, 次男以下는 分家形態를 이룸을 規範化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자식 간 동거나 별거는 전통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個人 또는 家庭事情에 따라서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결혼한 長男은 반수 이상이 그들 부모와 별거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長男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울도 弱화되었다. 또 結婚當時 居住地나 男便의 成長地도 시부모와의 동거율에 有意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의 경우(Tsuya, 1991; Kojima, 1989)도 예외가 아니며 전체 기혼부인중 부모와의 동거율은 한국과 비슷한 약 33%에 불과하다.

오늘날 결혼한 長男의 부모와의 동거나 분거는 다음 세가지 側面에서 그 類型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規範的 側面에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차남 이하는 분가하는 형태, 둘째는 社會·經濟的 側面에서 취업 또는 취학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형태, 셋째는 個人 側面에서 동거나 분거를 선호해서 또는 갈등관계로 분거하는 형태 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유형에서 첫번째의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둘째 또는 셋째의 경우가

늘어남이 특징이다. 물론 長男이 부모를 모실 수 없는 경우는 차남 또는 딸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부모들은 長男과 떨어져 살아야 할 때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면 未婚子女와 같이 살거나 노인만의 單獨家口를 이루는 추세이다(李佳玉, 1990).

결혼한 자녀와 그들 부모와의 동거나 별거는 규범적 측면에서 보다 內面的 同居意識 즉 扶養意識과도 관련된다. 1960년대초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父母扶養의 絶對的 責任은 長男에게 있다는 경우가 農村에서 66.2%, 都市(서울)에서 34.5%(崔在錫, 1965; 147)였으나 최근 長男에 대한 절대적 책임의식은 農村에서 31.7%, 都市에서 22.6%(經濟企劃院, 1988)로 약화되면서 長男(25%)보다 모든 자녀(54%)에게로, 부모 스스로의 자립(2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扶養意識은 부양책임이 있는子女들과 부양을 받아야 할 老人(60세이상)들과는 相反된 것으로 노인들은 아직 長男(93.4%)에게 絶對的 責任을 轉嫁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식이 실제 부모와의 동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젊은 층은 자신들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종래의 의식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따로 살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현재 자신들의 부모는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또 부모부양을 長男에게 편중시켜 왔던 점도 자녀 모두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동거를 꺼림은 역설적인 점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부모부양이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까지 長男中心의 直系家族形態는 수정되어질 수 있다(崔洪基, 1983; 157).

또 부모자식간 동거나 별거는 女性的 地位變化와도 密接한 關聯을 갖는다. 교육 및 취업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위치는 傳統的 從屬關

係가 平等關係로 變化(孔世權 外, 1990)되고, 급속한 산업화에서 각기 다른 경험과 의식을 가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살 때 姑婦葛藤의 첨예화는 世代間 別居要因으로 나타나게 된다(韓南濟, 1989; 77~84). 이러한 점은 본 분석에서 결혼요인이 부모와의 동거에 유관성을 갖는 점에서 內在要因으로 作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結果적으로 최근 결혼한 자녀와 그들 부모와의 동거는 일정한 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多樣한 條件과 相互作用으로 이루어지며, 分居傾向이 늘어남이 普遍的 趨勢라 하겠다. 그러나 동 분석은 제한된 자료를 기초로 동거와 분거상의 장단점이나 이의 상호관계 등을 규명하지 못했기에 충분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家族扶養에 관한 보다 깊은 關心과 多角的인 研究를 推進할 計劃이다.

VII. 結 論

본 연구는 1989년 만15세 이상 既婚婦人 2,838명을 대상으로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家族機能과 役割”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媳父母와의 同居樣相 變化와 關聯要因을 檢討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분석은 1960년 이후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감안해서 1960년 이전 産業化 前期에 결혼한 부인과, 1960~1979년간 産業化 過程에 결혼한 부인, 그리고 1980년 이후 産業化 成熟期에 결혼한 부인으로 나누어 로짓트 回歸分析 方法을 이용했다.

동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傳統的 父系中心의 直系家族이 産業化에 따라서 점차 瓦解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혼한 자녀와 그들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한세대를 거치면서 약 3/4이 1/3로 감소되었고, 長男이 부

모와 동거하는 율도 91%에서 47%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별거형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에도 전통규범은 아직 유지되어 長男이 부모를 모시는 율은 차남이하에 비하여 계속 높은 현상을 보인다. 또한 都市居住者인 경우 시부모를 모시는 경향이 낮고, 農村에서 성장한 남편인 경우 시부모를 모시는 경향이 더욱 낮다. 또 특기할 점은 多變量 分析에서는 부인의 教育程度가 시부모와의 동거에 미치는 영향이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인의 媳父母와의 同居率은 부인 자신의 특성보다는 家庭形便에 더 많이 依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感謝의 말

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著者들은 이러한 共同研究가 가능하도록 주선했던 美國 東西文化센타 人口研究所長 趙利濟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동 研究過程에서 많은 助言을 주었던 東西文化 人口研究所 Karen O. Mason 박사님께도 감사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1960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第2 券, 1963.
- _____,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第1 券, 1987.
- _____, 韓國의 社會指標, 1988.
- _____, 韓國統計年鑑, 1990.
- 孔世權 外, 韓國家族 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孔世權 外, 韓國家族의 機能과 役割變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現代社會와 家族, 1986.
- 李佳玉 外, 老人扶養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李光奎, 韓國의 家族과 宗教, 民音社, 1990.
- 韓南濟, 韓國都市家族研究, 一志社, 1984.
- _____, 現代韓國家族研究, 一志社, 1989.
- 崔在錫, “韓國人의 家族意識 變容”, 震壇學報, 1965.
- 崔洪基, “現代 韓國의 家族制度와 家族意識”, 國民意識의 現在的 診斷, 精神文化研究院, 1983.
- Goode, William J.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 Free Press, 1963.
- Goode, William J.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in Family in Transition, 4th ed., edited by Arlene S. Skolnick and Jerome H. Skolnick, Boston : Little Brown, 1983.
- Korea Survey(Gallup) Polla Ltd., Life Style and Value System of the Aged in Korea, 1990.
- Kojima, Hiroshi, “Intergenerational Household Extension in Japan” in F. K. Goldscheider and C. Goldscheider(eds.),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Boulder : Westview, 1989.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Outline and Major Results of the 1985 Population & Housing Census in the Rep. of Korea, 1989.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Results from the '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pril, 1991(mimeographed).
- Kwon, Tai Hwan, et al.,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5.
- Kwon, Tai Hwan,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 Tsuya, Noriko O. and Minja Kim Choe, Changes in Intrafamilial Relationships and the Roles of Women in Japan and Korea, NUPRI Re-

search Paper Series No. 58, Tokyo,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1991.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 C, 1991.

Tsuya, Noriko O., Coresidence of Japanese Women with their Parents : Preference and Rea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 C, 1991.

Post-nuptial Coresidence of Married Women in Korea

Minja Kim Choe*, Sae Kwon Kong**, Ae Jeo Cho***

Introduction

Korea is known to have one of the most patriarchal family system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Lee, 1990 : 118-113 ; Tsuya and Choe, 1991). Under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system, parents select children's marital spouses and the eldest son brings his bride into his parental home while other siblings form their own households upon marriage, sometimes following a brief period of coresidence with the husband's parents.

Since 1960, Korea has experienced fas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t the same time, women were getting increasingly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more women are participating in the labor force. These changes are likely to have influenced the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married couples.

This paper examines the pattern of the post-nuptial coresidence of married women in Korea in recent years,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t. The study 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Survey of Family Role in Korea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in 1989. The survey collected information from 2,838 ever married women of ages 15 and over about their mar-

riage, fertility, health status of the family, and their roles within and outside the family.

Patterns of post-nuptial coresidence

The pattern of post-nuptial coresidence is examined for three marriage cohorts, before 1960, 1960~1979, and 1980 or later. Women who did not have any surviving parents-in-law at the time of marriage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 three marriage cohorts exhibit different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rapid socioeconomic changes that took place in Korea in the recent past (Table 3). The post-nuptial coresidence with husband's family seems to have been the norm for the pre-1960 marriage cohort. Among them, although only about half of women report that their husbands were first sons, the proportion of women experiencing post-nuptial coresidence is over three quarters. The proportion has dropped to about one third among the post-1980 marriage cohort. The proportion of women living in urban areas is much smaller among the pre-1960 marriage cohorts compared to the other two cohorts reflecting rapid urbanization. The proportion of women

* Assistant Director for Professional Education,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hose husbands are first sons are slightly over one half among the pre-1960 marriage cohort and slightly under one half among later marriage cohorts. This reflects the slight increase in fertility during the 1900~1960 period.

The most dramatic changes are observed in the parental influence in marriage process. Practically all women who were married before 1960 met their husbands in some formally way or by introduction by someone belonging to the older generation. The proportion of women who met their future husbands through an informal setting (as neighbor, at school, at work, or by introduction by a friend) increased to nearly half of the post-1980 marriage cohort. The final decision of the choice of husband has become more independent from parent's influence.

The percentages of women who lived with their parent(s)-in-law right after marriage are shown in Table 4 by the marriage cohort and selected characteristics of women. The table shows a substantial declining trend in the post-nuptial coresidence. In addition, higher percentage of post-nuptial coresidence is associated with mor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rural post-nuptial residence; younger age at marriage; growing up in rural areas; more traditional marriage process; and lower of education.

Determinants of post-nuptial coresidence

This sections examin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net effect of determinants of post-nuptial coresidence for the three marriage cohorts defined in the previous section. We examine (1) residence after marriage, (2) whether husband

is first son, (3) woman's age at marriage, (4) place of growth of woman, (5) place of growth of husband, (6) how woman first met husband, (7) role of parents in choosing husband, (8) woman's level of education, and (9) year of marriage.

The estimated logit regression coefficients are shown in Table 5, and Table 6 shows the estimated percentages of women living with husband's parents after marriage by marriage cohort and other characteristics that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uples who lived in rural areas right after marriage experienced higher probability of coresidence with husband's parents. The post-nuptial coresidence decreased substantially among all women regardless of the level of education, the urban residents showing sharper decrease. The probability of coresidence is about twice larger if husband is the first son compared to other son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robability of coresidence is higher if husband grew up in urban areas. Earlier, we no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sidence and place of residence after marriage is the opposite: rural residents are more likely to live with husband's parents. We interpret this result as being the consequences of the rural-urban migration which is selective on young adults. It is likely that husbands who grew up in rural areas are more likely to have migrated away from home and is less likely to live with parents after marriage,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in the model.

The level of education is found no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post-nuptial coresidence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Thus, the large difference in post-nuptial coresidence

by different educational attainment shown in Table 4 seems to be due to other related factors such as post-nuptial residence and age at marriage.

In summary, the post-nuptial living arrangement of the young married couples is experiencing rapid changes in Korea. The proportion of couples living with husband's parents immediately after marriage is declining, especially in urban

areas. The first sons are still much more likely to reside with parents after marriage than other sons, but the effect of birth order is weakening. On the other hand the effects of situational factors such as residence, and rural to urban migration are increasing. The role of women's education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ost-nuptial coresidence with husband's parents.